



녹음이 무성했던 나무들이 나뭇잎을 모두 벗어 영산암을 보여주고 있다. 돌계단을 오르는 스님의 모습이 한가롭다.



영화 '달마가...'와 '동승'의 주요무대였던 영산암과 마당의 모습.



매표소에서 일주문까지 이어진 소나무 숲길.

‘달마가...’ ‘동승’ 촬영지
● 안동 영산암(靈山庵)

영화 속에 보았던 ‘옛날’ 과 ‘자연’ 을 만나다

“스님은 왜 산에 계십니까?”
환속을 결심한 기봉 스님이 큰스님에게 물었다. 큰스님은 법당 처마 끝을 바라보며 말했다.
“강남에서 온 제비가 고향길은 어디로 나 있더냐? 네가 물어간 법사 한 알에 황금빛 수선화는 입을 열더냐?”

1989년,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하 달마가)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다. 스님 셋이 주인공인 영화였다. 그 때 나는 달마가 누군지 몰랐다. 동쪽으로 간 것도 몰랐고, 왜 갔는지는 더더욱 몰랐다. 그리고 영화를 촬영한 곳이 이 곳 영산암이었다는 것도 21년이 지나서 알게 됐다. 연로한 큰스님이 방안에서 문살에 기대 햇살을 살며시 밟아내며 풍자 해진을 부른다. “해진야!” 열린 문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작은 마당이 보이면서 영화는 시작된다.

영산암은 신라 문무왕 12(672)년에 의상대사의 제자인 능인 스님이 창건한 봉정사(鳳停寺)의 부속 암자다. 영산암의 정확한 건립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몇 가지 사료를 통해 19세기 말로 추정하고 있다. 우화루와 관심당, 송암당, 응진전, 삼성각으로 이뤄진 영산암은 전각의 배치가 독특하고, 특히 마당이 아름다운 암자다. 출입문인 우화루 밑을 지나 돌계단 몇 개를 오르면 결코 크지 않은 마당이 도랑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 마당에서 해곡 큰스님은 세간으로 돌아가려는 기봉 스님에게 지팡이를 던지며 역정을 낸다. “말해라 말해! 마음달이 들밑에서 차올 때 나의 주인공은 어디로 가느냐?” 큰스님이 기봉 스님에게 준 화두였다.

영화에서 영산암은 다 쓰러져가는 암자다.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지금은 법당 헛바루도, 관심당 문살도 영화 속 하고는 다르다. 쓰러져가는 암자의 모습은 절대 아니다. 영산암에는 응진전 뒤로 편안한 소나무 숲이 있다. 그 숲속 작은 언덕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영산암이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작은 암자다. 바람에 날려 온 꽃씨가 바람이 정해진 곳에 자리를 잡듯 영산암은 자연 속에 자연스럽게 피어있었다. 억지로 땅을 밟지도 꺾지도 않았고 길을 내지도 않았다. 영화 속에서 보았던 ‘옛날’이 있었고, ‘자연’ 속에 있었다. 내려다보이는 마당 위로 영화 속 장면들이 지나간다. 산세 한 마

작은 암자에서 느끼는 고요와 정갈함...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

리를 죽임으로써 삶과 죽음의 문제 속에 던져진 어린 해진의 모습. 깊고 싶은 괴로운 속명 속에서 대자유를 갈망했던 기봉 스님의 모습. 석등에 불을 켜며 저녁 마당을 거닐던 해곡 큰스님의 모습. 영화 속에서 보았던 암자의 마당이 21년의 세월을 건너 작은 스크린처럼 눈앞에 펼쳐져있고 컷가에는 기봉 스님의 독백이 들려왔다.

“그는 홀로 왕궁을 나와 검은 숲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2500여 년 전 어느 날 이 땅에 있었던 그의 떠남은 세상을 등져버린 떠남이었던가요? 그는 출가를 통해 이 땅의 모두에게로 시간을 초월하여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떠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돌아

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떠나간 것은 모두에게로 완전하게 돌아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달마가’는 보통의 영화와는 다르게 스토리 중심의 플롯을 버리고 회화적인 영상과 상징적인 대화를 중심으로 영화를 끌고 간다. 해곡 큰스님의 설법과 기봉 스님의 독백이 이 영화를 보게 만드는 힘이다. 대화 속에 숨어있는 상징과 은유, 그 뒤에 따라붙는 감각적이고 불교적인 영상이 그 힘을 더 큰 힘으로 만들어 영화를 완성한다. 21년 만에 다시 본 영화가 영산암으로 향하게 했다.

떠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영산암에 밤이 오고 불 켜진 응진전 문살 너머에서 동자 해진의 저녁예불 소리가 들려온다. “지심귀명례” 풍경소리 같은 해진의 예불소리가 영산암 어둠속에 번지고, 석등 앞에 선 기봉 스님은 법당을 향해 합장을 한다. 기봉 스님은 해진에게 큰스님의 유품을 전해 주고 암자를 떠난다. 멀어진 기봉 스님의 뒤를 따라가며 해진이 묻는다.
“스님, 어디로 가세요?”

‘달마가’가 상영되고 그로부터 10년 뒤 영산암에서는 또 하나의 영화가 촬영되는데 2002년에 개봉한 ‘동승’이다. 월북 작가 함세택의 원작 희곡 ‘마음의 고향’을 리메이크한 영화인데, 세 스님의 이야기라는 설정은 ‘달마가’와 비슷하다. 다음에 영산암에 올 때는 영화 ‘동승’을 다시 보고 와야 할 것 같다.

글 · 사진 =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영산암 가는 길
자 가운데전은 고속도로 서안동나들목을 나와 안동 방향으로 ‘봉정사’ 이정표를 따라가면 된다.
대중교통은 안동 시내로 들어와서 안동초교 앞에서 출발하는 51번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하루 7번 운행한다. 출발 시간은 안동초교 출발이 06:00, 08:15, 10:30, 12:40, 14:40, 17:10, 18:50 이고, 봉정사 출발은 06:50, 09:20, 11:30, 13:40, 15:40, 18:00, 19:30 이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 운주사
불교서적 · 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 운주사 www.unjusa.com
※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음공부를 위한 깊이 있는 통찰, 도서출판 운주사의 <밝은 사람들 총서>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욕망의 본질에 대한 초기불교, 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심리학, 생물학에서의 성찰
욕망이 없는 삶은 과연 행복할까? 반대로 욕망만을 추구하는 삶은 행복할까? 욕망은 삶의 주체인 인간이 그 욕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절하느냐에 따라 혹은 억압과 발산의 조절능력에 따라 그것이 괴로움의 뿌리가 될 수도 있고, 삶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정준영, 한자경 외 | 신국판양장 | 400쪽 | 값 18,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자아의 실체에 대한 초기불교, 중관 · 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정신의학, 심리학, 생물학에서의 성찰
‘나는 누구인가?’ 이 책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근원적인, 그러면서도 어느 누구도 이것이라고 명쾌하게 답하기 어려운 ‘나’라는 존재에 대해, 인간 내면의 문제에 가장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불교에서의 관점을 비롯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성찰하고 있다.
권석만, 김진우 외 | 신국판양장 | 504쪽 | 23,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마음의 작동에 대한 초기불교, 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정신의학, 인지과학에서의 성찰
형체가 없어 보이지도 잠을 수도 없는, 분명 존재하지만 도대체가 그 실체를 알기 어려운 마음의 존재와 작용 방식에 대해, 가장 오래된 연구 전통을 자랑하는 불교와 계단 인접 학문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어, 마음 연구를 위한 총체적 편람 역할을 한다.
미산, 윤원철 외 | 신국판양장 | 396쪽 | 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몸의 작용,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초기불교, 선불교, 동양철학, 서양철학, 의학, 생물학에서의 성찰
물질과 정신, 몸과 영혼의 문제는 인류 지성 앞에 던져진 가장 근원적인 의제 중의 하나이다. 몸은 마음(영혼, 정신)의 부속물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아니면 서로 동등한 입장의 동업자인가? 이 책은 ‘몸’의 역할과 정체를 ‘마음 공부’의 측면에서 성찰하고 있다.
우희중, 성태용 외 | 신국판양장 | 424쪽 | 20,000원